

해경 부실수사 ... 알고 있는게 뭐가

여수 기름 유출

여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해경의 수사가 총체적 부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름 유출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방재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아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인적

피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해경, 피해자 파악은 커녕, 신고 받고도 '무시'했다=여수해경은 지난 7일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이모(46)씨가 바다에 빠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달 31일 이후 8일 동안 전혀 몰랐다가 여수시의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공개한 게 언론에 알려진 뒤 확인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4일 이뤄진 해양수산부의 국회 보고에서도 인적 피해 '없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경이 당시 현장에 있던 13명의 목격자를 두루 조사했는데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한 만큼 부실한 초동 수사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경찰은 6일 관련 사실을 제보받았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아 '복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예산지회 간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6일 해경 정보과 직원에게 관련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고 말했다. 결국, 제보를 접수한 정보과가 관련 사실을 수사과로 전달하지 않은 채 넘기면서 '부실'한 피해 조사가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날땀'기름유출량 파악, 못하나 안하나=정확한 기름 유출량 파악도 지지부진하다. 바다 생태계 오염

사고 때 사투 끝 구조된 40대 부상자 일주일 넘게 몰라
정확한 기름 유출량 파악 못하고 사고원인 수사 지지부진
장비 수급 방법 등 대응 매뉴얼도 안 지키고 방재활동

현황 및 어떤 피해 규모 산출 과정에서 기름 유출량 파악은 핵심이다.

하지만 해경은 사고 발생 하루 뒤인 1일 1만ℓ라는 추정치를 내놓았다가 3일에는 무려 16배에 달하는 16만 4000ℓ에 달한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정부 방재 당국이 일주일도 안돼 널뛰기하듯 기름 유출량을 늘려 내놓으면서 초기 부실 조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방재 당국이 초기 추정 유출량을 근거로 방재 계획을 세운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방재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다. 해경은 이후에도 기름 유출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여태껏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대응 매뉴얼도 안 지켜=여수해경의 방재 매뉴얼 미조치도 부실한 대응에 한몫을 했다. 여수해경은 해양경찰청이 내려보낸 '여수지역 긴급

방재실행계획'에 따른 사고 발생시 행동 매뉴얼을 비롯, 장비 수급 방법 등을 적용하지 않은 채 방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 접안 배경, 접안에 앞서 예인선과 줄을 연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조사 결과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경의 수사력이 부재한 점에 대한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대지동 하촌마을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영해 50여년 만에 지신밟기 행사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8일 광주시 남구 대지동 하촌마을 주민들이 정월대보름(14일)을 앞두고 지신밟기를 하고 있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된 하촌마을은 지난해부터 풍물교실을 운영해 50여년 만에 지신밟기 행사를 다시 시작했다.

/나평주기자 mjna@kwangju.co.kr

화순서 노부부 번개탄 피운 차량안 숨진 채 발견

지난 6일 밤 9시30분께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 인근 공터에서 김모(75)씨와 아내 이모(65)씨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부부가 차량 뒷자석에는 번개탄 4장과 A4용지 6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 "병마와 싸우다 간다. 아빠가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오랜 투병 생활을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천식 등으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부인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6일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던다는 아들(45)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1시간여 만에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김씨 부부를 발견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3860만원 부정수급 환수에 장애인 비관 자살

지난 6일 오전 7시1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정모(48)씨의 원룸에서 정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직장 동료 김모(60)씨가 발견해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정씨는 방 안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으며 방에는 빈 막걸리병, 화장실에는 불에 탄 번개탄 3개가 있었다.

10년 전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정씨는 지난 2007년부터 남구 백운동 한 사우나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월 120만원을 받았다. 소득이 있었지만

정신지체로 지난 2008년 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정씨는 자신의 근무사실을 숨기고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6년동안 생계 급여·장애수당 등을 포함해 모두 3860만원을 부정 수급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이 사실이 구청에 적발돼 조사를 받던 중 지난 3일 총 수급비 환급이 결정되자 이 사실을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부싸움에 불 ... 어린 남매 숨져

여수 국동 모 아파트서

부부 싸움을 하던 40대 가정이 화기에 지른 불로 어린 남매가 숨졌다.

지난 7일 밤 9시10분께 여수시 국동 한 아파트 3층 황모(46)씨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 황씨 아들(12)과 딸(9)이 숨졌다. 황씨와 아내 지모(38)씨, 또 다른 쌍둥이 딸(9)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119가 출동했을 당시 황씨 아들은 출입문 입구에서, 딸은 거실 소파 옆에서 쓰러져 있었고 황씨와 다른 쌍둥이 딸은 앞 베란다, 황씨 부인은 뒷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화재는 아파트 거실 등 33㎡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5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황씨가 이날 밤 9시께 자

녀 교육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소파에 불을 질렀다"는 딸의 진술에 주목, 황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황씨가 작업복에 묻은 페인트 제거를 위해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소파에 뿌리고ライター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수=김정화기자 chkim@

봉침 맞다 '봉변' ... 광주서 40대女 사망

관절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요법인 봉침(봉독)시술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지만 일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홍모(여·49)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께 광주서 북구 남모(여·51)씨의 집에서 2시간 동안 목·손가락 등 7곳에 봉침을 맞았다.

시술받은 직후 어지러움증을 느낀 홍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

으나 숨졌다. 북부경찰은 지난 7일 부검을 통해 홍씨가 과민성 쇼크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초기 소견을 토대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홍씨의 사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단정지는 순 없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봉침에 대한 과민성 쇼크 반응이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봉침 알레르기라고 인

한 사망률은 0.3~3% 정도로 드문 편이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전신 쇼크와 같은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을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9일 무면허로 홍씨의 몸에 봉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남씨를 구속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상가 침입 도둑 추위에 차 타 마셨다 DNA 남겨 '달미'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상가에서 차(茶)를 타 마신 20대 절도범이 현장에 남긴 종이컵 때문에 경찰에 달미.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오모(28)씨는 지난해 11월28일 새

벽 1시10분께 광주서 서구 화정동 상가건물 2층 정모(여·45)씨의 공인중개사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파손한 뒤 침입해 시가 60만원 상당 태블릿PC를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 초부터 한 달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오씨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상가 안에서 종이컵에 울무차를 타 마시기도 했는데,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이를 수거해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해 그가 지난해 12월 600여만원의 벌금 미납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던 사실을 확인해 검거.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투자하라 권리금없는 프리미엄 단지

일대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1층	의류매장 / 금융기관 / 커피숍 핸드폰매장 / 편의점 / 약국	331.38㎡ / 76.42㎡
2층	의류매장 / 금융업소 커피숍 / 휴게음식점	593.17㎡ (±179.43평)
3층	전문 의원 안과·이비인후과 치과·피부성형과	1164.9㎡ (±352.38평)
4층	사무실 / 학원	365.58㎡ (±103.71평) 216.87㎡ (±63.11평) 582.45㎡ (±172.24평)
5층	아스터어학원 유투엠수학학원	임대확정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단비플라워

죽화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公 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